

유럽, 反난민·反이슬람 집회 확산 신년 獨踰른 집단 성폭력 사건...反이슬람 정서 심각 불리와



‘페기다’의 제안으로 反난민·反이슬람 집회에 모인 유럽 시민들. ©페이스북

유럽 反난민·反이슬람 정서가 극에 달한 가운데, 6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드레스덴과 프랑스 칼레 등 유럽 1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反난민·反이슬람’ 집회가 열렸다. CNN과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독일의 反이슬람단체인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의 제안

으로 열렸다고 한다. 이 단체는 집회 성명을 통해 “서구 문명이 이슬람의 유럽 정복으로 조만간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수천 명이 드레스덴에 모인 집회에서 “유럽을 요새로!”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獨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특히 이들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우호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에서는 2천 명 가량이 모여 이 집회를 반대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들은 “외국인 혐오와 악선전에 반대한다” “나치가 나설 자리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독일 경찰은 양쪽 충돌을 대비해 1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변을 보호했다. 체코 프라하에서는 5천여 명이 모여 집회가 열렸으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페기다 지부 결성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영국 버밍엄에서도 집회가 열렸으며, 각각의 곳에서는 페기다 입장 반대 측에 선 사람들도 모여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더불어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폴란드 바르샤바, 오스트리아 그라츠,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그리고 유럽이 아닌 호주 캔버라 등에서도 페기다 집회와 유사한 집회들이 열렸다. 한편 ‘페기다’는 ‘서양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Patriotic Europeans Against the Islamisation of the Occident)을 의미하는 약자로, 현재 유럽에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추진 중인 난민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10가지 특징

1.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2.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3. 성령이 아니라 물질에 좌우된다.
 4. 교회에 배 참석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닌 인간관계 형성을 위함이다.
 5.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6. 하나님을 인생의 일부분으로 치부한다.
 7.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8.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9. 제자를 삼지 않는다.
 10. 재정과 관련, 성경적 청지기 정신이 없다.
-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
 美뉴욕 레저렉션 교회 담임목사 조셉 마테라 칼럼 중

사람은 흠으시고...사랑은 모으시고 UN 중심 시리아 난민 돕기 콘퍼런스로 하루만에 10억 달러 조성

IS의 공격이 난무하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더 커져 가지만,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는 시리아 난민돕기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 행사는 UN을 중심으로 영국, 쿠웨이트, 독일, 노르웨이 등이 공동 주최했다. 목적은 전 세계로 흠어지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어

가고 있는 시리아 난민과 그 주변 국가를 돕기 위함이었다. 올해 총 목표액은 90억 달러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국가들도 시리아는 물론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 등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입돼 시련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에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을 통해 시리아 난민 돕기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콘퍼런스가 끝난 직후 발표를 통해, 하루만에 10억 달러를 모금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했다. 흠어집 속 고통 속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향해 위로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모으시고 계신다. 한편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5일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이슬람국가(IS)에 총성맹세를 한 무장단체가 모두 34개인 것으로 확인됐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S가 세계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원유 거래로 말미암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라고 공개하고 “IS의 영향력이 최근 중동을 비롯해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확대됐다”면서 특히 리비아

와 나이지리아 등 중동 국가를 비롯해 필리핀, 파키스탄 등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까지 이 범주에 포함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IS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 집단이라고도 했다. IS는 지난해 거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관련 수익으로 4억-5억 달러(약 4천 790억-5천 987억원)의 이득을 챙겼으며,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 은행에서 10억 달러(약 1조 2천억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IS 점령지를 오가는 관문세도 1년 동안 10억 달러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페어서번트

美서부지역 순회 사역

찬양집회, 음향 세미나 및 장비수리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는 리페어 서번트의 마윈철 목사가 美서부 지역 순회 사역에 나선다. 11월부터는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24일부터는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각각 사역한다. 문의는 전화)909-292-7474, 이메일) repairservant@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pairservant으로 하면 된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침길
 재능 계발·토렌스, 알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3rd Missional Church Seminar

2016.3.14(월)-16(수)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The Church Called and Sent to the World

한국일 교수
 신교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논문: 선교적 교회론
 한국적 상황에서 보 선교적 교회론
 신교학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등
 역서: 신교학 사전(공역)
 저서: 신교학 개론
 세계를 품는 교회들

배현찬 목사
 주 예수교회 담임
 DSMC 원장
 KWMC 공동의장
 NCKPC/PCUSA 총회장
 연세 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저서: 사회선교는 이렇게 리더십은 이렇게

신광섭 교수
 선교적교회
 Intercultural Studies
 Visiting Professor of Missional Church Education,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노승환 장로
 주 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박태은 장로
 주 예수교회 장로
 지역사회 선교사역
 선교위원장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영상(Practicum) 노숙자 숙박 사역(CARITAS/Homeless Shelter), 노숙자 급식 사역(Monroe Park/Soup Kitchen), 빈민촌 주택보수(Project: Homes/Renew Crew), 산골빈민촌사역(Appalachian Service Project), 지역사회축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Korean Food Festival)
숙박 Four Point Sheraton Hotel **등록비** \$100 (교재 및 숙식), 선교사 (등록비면제)
등록 주 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주관** 주 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PCUSA)
협력 센트럴 신학대학원 (CBTS/D.Min Program) **후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주 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 560-7500/7509 | WWW.LJKC.ORG

“UMC도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성...한인교회들 대처 준비”

교단 내 한인총회 <우리 교단 Human Sexuality Q&A> 발표



과거 열렸던 UMC 한인총회 정기총회 모습.

UMC(미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교회들의 모임인 한인총회가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과 관련해 한인교회들의 대처방안에 관한 글을 1월 27일 한인총회장 이성현 목사 명의로 발표했다.

<우리 교단 Human Sexuality Q & A>란 제목의 이 글은 UMC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에서 향후 전망 및 한인교회의 대처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미국 주요교단 중 하나인 PCUSA(미국장로교)가 동성결혼을 인정한 후, 이 교단 내 한인교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친동성애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UMC 내의 한인교회들도 미리 대책을 준비 중이라 해석할 수 있다.

UMC는 현 장정에 “결혼은 한 남

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동성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는 기독교 가르침에 어긋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개방돼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또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사람의 경우, 안수를 받을 수 없고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집행할 수 없고 교회는 동성결혼을 위해 대여해 줄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 이 장정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일부 연회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교단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목회자들도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나 처벌은 연회별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목사가 파직된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UMC는 오는 5월 열릴 총회에서 동성결혼 관련 안건을 또다시 다루게 된다.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현 장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PCUSA처럼 완전히 친동성애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또 소위 말하는 중재안도 가능하다. 동성결혼을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동성결혼을 찬성하지만, 목회자들에게 주례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실제로 한인총회에 따르면, UMC는 지난해 5월 18일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에서 제3의 길이라는 중재법안을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2016년 총회에 상정된다.

한편 한인총회는 동성결혼이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화됐지만, 교단에서는 합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결혼 주례 요청이나 교회 대외 요청이 들어올 경우 개체교회가 이를 거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인총회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김준형 기자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정중양)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이경숙 권사.

“통일 시대 차세대 리더 양육해야”

국가조찬기도회 이경숙 회장 초청...동포간담회 열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이하 국가조찬기도회) 최초 여성 회장 이경숙 권사 초청 LA동포간담회가 7일(주일) 오후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가조찬기도회 남가주지회(회장 손수웅 장로) 주최로 열렸다.

이날 이태형 남가주지회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1부 기도회에서는 손수웅 회장의 환영사와 이경숙 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재을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부회장)가 나라와 민족 국가지도자를 위한 기도, 강지원목사(한인여성목사회 회장)가 국민화합과 경제번영을 위한 기도, 신동국 장로(남가주지회 부회장)가 청소년과 미래 과제를 위한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 순서를 마친 후에는 백지영 목사(한인여성목사회 직전회장)가 권면을 전한 후 이준호 장로(남가주지회 부회장) 사회로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이 총장은 “오는 3월 3일 코엑스에서 열릴 기도회 주제는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이란 주제로 정했다. 특별히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천여 명이 참석해 기도의 불을 지펴가는 계획도 세웠다. 차세대의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이 전승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양육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다가올 국가조찬기도회가 차세대 리더들의 영적 성숙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차세대 신앙전수와 교육을 위한 질문들이 오고 갔다. 이 총장은 지난 10여 년간 수백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길러낸 netkal과 같은 단체를 언급하면서, 한인사회를 대변하고 미국사회의 정책반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한인 크리스천 리더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netkal과 같은 단체와 한국의 차세대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차세대 리더를 바로 세워야 한인사회의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며 “이 문제에 미주 한인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 길에 이곳 남가주지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장은 적자에 허덕이는 숙명여대 총장으로 취임해 학교를 반석위에 우뚝 세워놓은 기도의 어머니로 이미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이인규 기자

“제10회 GKYM대회...2세 중심 리더십 변화기대”

GKYM 국제본부, 로체스터에서 열릴 대회 설명회 가져



제10회 GKYM대회가 올해 12월 로체스터에서 열린다. 기자회견에서 GKYM 지도부와 스태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많은 한인 청년들을 미전도종족 선교사로 세워 왔던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 선교운동인 GKYM 제10회 대회가 올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로체스터 리버사이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GKYM 국제본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뉴욕 대동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회째를 맞는 GKYM 대회의 개요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GKYM 공동창

립자인 김혜택 목사(중신교회)를 비롯해 이동열 선교사(HIM 아이티), 노희송 목사(토론토큰빛교회), 정민용 목사(커버넌트헬로우십교회),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김은열 목사(GKYM 행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GKYM 대회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차세대 청년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세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나이가 가라 대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었던

GKYM 대회는 그 동안 1천여 명의 단기선교사와 1백명 이상의 장기선교사를 배출하며 차세대를 세계선교의 중심에 서게 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선교 운동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10회째를 맞는 2016년 로체스터 대회의 주제는 “We the Messengers”(말3:1)이다. 1세 목회자들의 주도로 시작됐던 GKYM 대회는 횡수를 거듭하며 1.5세와 2세 지도부가 든든히 서었고, 10회차를 맞아 차세대가 주관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 선교대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강사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세대 중심의 강사 구성이 예고되고 있고, 지도부 또한 1세대가 다수였던 초기 대회와 달리 2세 지도자들이 대거 세워져 문화적으로도 2세에 더욱 적합한 대회가 됐다는 평가다.

올해 대회는 자녀가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유스그룹까지 수용할 예정이다. 규모는 유스그룹까지 포함해서 5천 명을 기대하며 참가비는 숙식포함 200불로 3박 4일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미주복음방송 창립 25주년 감예배 및 새 비전 선포”

2월 11일(목) 오후 5시...나성동산교회에서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미주복음방송이 2월 11일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미주복음방송은 2011년 AM1190 라디오 방송 자체 스테이션 마련 및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전 세계를 청취권역으로 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미 LA 한인타운의 사옥을 매각하고 애너하임 지역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한 미주복음방송은 LA와 애너하임

지역에 2원 방송체제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새로운 컨텐트로 은혜롭고 효율적인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이에 창립 25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성동산교회: 2525 James M. Wood Bl., LA, CA 9006
▲문의: 213-381-190

장재효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목회 57년 돌아보니 불초한 종 쓰신 하나님 은혜뿐...”

목회 인생 반 세기를 넘겨서도 아직 전 세계를 돌며 제자를 세우는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장재효 목사 집회 일정

- 2월 14(일) 오전 11:00 월서크리스천교회 (엄규서 목사)
- 2월 19(금) 오후 7:30 한마음 제자교회 (곽부환 목사)
- 2월 20(토) 오전 5:30
- 2월 21(일) 오전 8:00
- 2월 21(일) 오전 11:00
- 2월 23(화) 오전 11:00 여성목사회 주최 특강 한우리장로교회(강지원 목사)
- 2월 28(일) 오전 11:30 남가주임마누엘교회 (박용일 목사)

*문의:T(213)739-0403

주제: 구령성과 위한 바른 목회 특별세미나

- 시간 : 2016년 2월 15일(월) 오전 10:30
- 장소 : JJ 그랜드 호텔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 Tel : (213)383-3000
- 집회 문의 : (213)739-0403, (213)434-1170
- 주최 : 성은 바른목회 연구원
- * 자리예약 필수(식사 제공)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후원 : 남가주한인목사회, 기독교방송, 복음방송, 남가주여성목사회, Cts 기독교방송, 기독교일보

하늘나라 대사인 'GO!전도사역원' 대표 조영 장로의 랭커스터 사무실은 늘 분주하다. 지난 월요일 하루에만도 주말 사이에 들어온 1만여 장의 전도책자 주문을 확인하고 델러스, 시애틀, 마이애미 등지로 발송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스페인, 미얀마, 인도 등에서도 몰려드

는 전도지 요청을 소화하기 위해 평소 150만 권의 전도책자를 준비해 놓고 있다. 도네이션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 바디로 판매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는 최전선인 선교지에는 무료로 공급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길”

■ 기독일보 초대석

GO!전도사역원 대표 조영 장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쓰기 원하십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 백성이 먼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 180개 나라에 800만 명의 한민족을 심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난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전도생각뿐인 까닭이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거침없는 대답이 쏟아진다.

“많은 분들이 전도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 길을 못갑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핍박받는 전도자를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것이지요.”

조 장로가 전도의 불을 받은 것은 19년 전부터 6년간 미국인 공동체인 랭커스터침례교회를 섬길 때였다. 한국 선교사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둔 폴 채플 목사가 담임하는 그 교회는 당시 3,000여 명의 교인 중 800-900명이 구령의 열정으로 타고르고 있었다.

“마치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래 복음 전파에 관심이 많았고 전도폭발 등의 훈련도 받았지만 이 교회에 다니는 동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에 불길을 주셨는데 미주 한인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받은 기도응답으로 그는 ANC은누리 교회로 옮긴 뒤 13년째 전도사역을 맡아 사람

들을 키우는 일에 애오라지 힘쓰고 있다.

그 무렵 GO!전도사역원도 설립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말씀이 모토였다. 사역원은 특별히 전도책자를 직접 제작해 여러 민족 교회에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쇄한 물량은 무려 850만 여권. 한국어, 영어, 스페인시 등으로 시작해 중국어, 힌디어, 아랍어, 베트남어, 일어 등 35개 언어로 지경을 넓혔다.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할 때 최고 한 해에

13년 전 단체 설립 영혼구원에 올인 전도책자 850만권 인쇄해 전국 보급 미주한인교회 방문 세미나 사역으로 전도자들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 확장

12명까지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2명, 5명, 7명을 교회로 인도한 해도 있었고요. 10여년 전 12명을 전도하고 뿌듯한 심정으로 기도했지요. ‘하나님, 기쁘시죠?’ 그런데 제게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언제 살리겠느냐’였습니다.”

그는 ‘그럼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모든 평신도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을 준비하라”는 응답을 받았다. 그후 6개월간은 주말마다 팜데일 인근 영락기독교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도구는 성경인데 기존 전도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알려 주세요”라는 것이 그의 간구였다. 기도 중에 말씀들을 받아 기뻐한 결과물이 GO!전도책자다.

조 장로의 또 하나 주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전국의 교회들을 방문, 하늘 아버지의 눈물을 신자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일이다. 간증과 예화를 곁들인 그의 ‘GO!전도훈련’은 큰 반향을 일으킨다. 한 목회자는 “회심성장이 좋고 이동성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즘 현실에서 그의 전도훈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추수 사역이다. 무엇보다 다문화권 선교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추천했으며 다른 목회자는 “선교사 출신인 저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전도대상으로 삼는다는 발상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고백했다.

이밖에도 “GO!전도가 무조건 전도하러 간다. 언제 어디서나 전도한다는 매우 성경적인 생각을 심어주었다” “아이를 데리고 노방전도 실습을 하며 라

티노들에게 간단한 몇 마디와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는 동안 많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좋았다”는 등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작년에 가주, 콜로라도, 워싱턴, 텍사스 등에서 14차례 전도집회 및 세미나를 인도했으며, 올해도 벌써 9차례의 일정이 잡혔다. 이 중에는 수십 개 교회 목사 및 평신도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5월 6-8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전도대집회도 포함돼 있다.

“개인적으로 백인, 흑인, 라티노 등 약 5만 명에게 복음을 제시했지요. 그런데 혼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만-30만 명밖에 전도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를 깨워서 보내면 수천만에 복



GO!전도사역원 대표 조영 장로.

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교 시절에 이민 와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MBA를 받은 조 장로는 엔지니어링 회사와 마케팅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일은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30-40년을 더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는 아직도 젊은 사람”이라며 나이를 잊은 채 영혼 구원에 여생을 올인하고 있다.

그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거룩한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 매일 1시간 조깅으로 몸을 단련한다. 운동 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울리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오직 한 가지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미주 한인교회들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도의 황금어장인 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요 4:35)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베스트셀러 간증집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주인공 안이숙 여사(1997년 소천)를 이모할 머리로 둔 조 장로는 전도 현장의 감격과 기쁨을 담아 ‘나가자 전도하자 승리하자’(쿰란출판사)를 출간하기도 했다.

▲ 문의: www.go91.com, (661) 575-7744 김장섭 전문위원



GO!전도사역원 대표 조영 장로에게서 훈련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LA 맥아더공원에서 전도실습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성경 안에서 성경을”

제사장만 알고 있는 성경해석법

강신권 목사(코헨대학교 설립총장)가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 자신이 평생 연구한 히브리식 말씀 교육 비법을 공개한다. 강 목사는 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인 게리 코헨 박사와 함께 코헨대학교를 설립해 히브리식 말씀 전수와 관련된 연구를 해 왔다.

강 목사는 “유대인들은 말씀 전수에는 성공했지만, 세계 선교에는 실패했고, 기독교인들은 세계 선교에는 성공했지만, 말씀 전수에는 실패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말씀해석법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세계 선교에 긴급히 뛰어들면서 이방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말씀 해석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대인 제사장들만이 알고 있는 성경해석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라식 접근법이 아니라 히브리식 접근법”이라며 “우리는 성경 밖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던 유대인만의 성경해석법은 제사장 가문의 게리 코헨 박사가 개종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 목사가 진행하려는 프로그램은 총 3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식 사고로 공부하는 토브 바이블 스터디다. 이것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강 목사가 시무하는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태필린 세미나도



강신권 목사.

열린다. 태필린은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방법에 관한 세미나로, 혹독한 박해를 이겨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비밀이 공개된다. 마지막은 히브리식 성경 원전 해석 세미나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로 성경 원전을 파고드는 세미나로 작은 교회 목회자나 목회에 새로온 비전을 얻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562-761-5242

김준형 기자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⑩

<기타 관광지>

성지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금빛 모래가 빛나는 사막, 신비로운 호수 바다 사해, 광활한 황야와 비옥한 토양을 가진 우브딿 계곡 등 다양한 천혜의 축복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자연을 몸소 느끼는 사이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 은혜로운 땅 이스라엘 그 자체의 매력에 빠지는 여행 속 여행을 즐겨보자.

1. 해안평원

이스라엘은 평원, 산악, 사막, 해안지대로 이뤄진 좁고 긴 형태의 나라다.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서쪽 해안은 일반 해변보다 공간이 넓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모래로 채워져 있는데 이곳을 해안평원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의 해안평원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여섯 개의 지리 구역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 갈릴리 해안평원이며, 이곳에는 고대 유적지와 명승지가 흩어져 있다.

2. 네게브 사막

네게브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막. 북부는 사구가 발달한 저지대, 중·남부는 석회암 습곡산지다. 오랜 화산활동과 침식작용으로 신비로운 모양과 색을 지닌 바위산들이 많다. 네게브는 히브리어로 남쪽 또는 황무지라는 뜻이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후 40여 년을 산 곳, 광야라고 전해진다. 구약성경 시대와 로마·비잔틴 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스라엘 정착민 외에도 전형적인 아랍 유목민인 베드윈족이 수천년 전부터 살아왔다.

3. 우브딿 계곡과 에일랏 산들

에일랏과 사해를 연결하는 도로 옆에는 질푸른 포도밭이 펼쳐지고, 길으로는 황량해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옥한 토양을 지

닌 우브딿 계곡에는 약 6,000년 전-1만년 전에 이르는 사이 정착한 다양한 민족들의 정착 유적이 있다. 최근 발견된 한 신전에서 신비로운 표범 조각이 새겨진 9,000년 된 돌담이 출토됐다.

4. 하이파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세 번째로 크고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와 관광객으로 활기찬 해변이 매력적인 관광도시다. 특히 서핑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해변은 주변 서핑광들을 끌어들여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해양 스포츠 이벤트들이 수시로 개최된다. 이곳의 바하이교 성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끝>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매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매니저 김상준.

“내 안의 보석찾기 세미나”

한인 기독교 상담소 개최...2월 10일부터 매주 1회 4주간

월드미션대학 부설 한인 기독교 상담소에서는 오는 2월 10일(수)부터 3월 4주에 걸쳐 “내 안의 보석찾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존감이라는 보물을 통해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뿐 아니라 타인과 함께 행복해지고, 그렇게 중년기, 노년기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신감을 되찾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불어 행복한 삶을 꾸꾸는 LA커뮤니티의 남녀노소 모두에게 뜻깊은 세미나가 될 것이다.

*일정: 매주 수요일
2월 10일, 17일, 24일, 3월 2일
*시간: 오전 10:30-오후12:30
*등록비: 10불
*장소: 한인 기독교 상담소 5층 509호
*주소: 500 S. Shatto Pl. #509, LA, CA 90020
*문의: 213-738-6930
*주별 강의 내용
1주: 내 안의 보물찾기(자존감)
2주: 더불어 행복찾기(공감과 경청)
3주: 걸림돌을 디딤돌(스트레스 관리)
4주: 세월이 주는 선물 (중년기, 노년기 인생통합)

스마트 행복 문화교실

교포사회의 건강한 문화와 행복한 삶을 위한 스마트 행복 문화교실이 열리고 있다.

- *전도훈련행복교실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
- *파노라마 말씀교실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오후 9시
- *바하르 합창교실 (남녀 혼성 합창팀)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오후 9시
- *어린이 합창교실
시간: 매주 토요일 (주니어반)오전 9시 30분 (시니어반)오후 1시
- *장소: 남가주빛내리교회
*주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문의: 714-401-9874

나무엔 쉽 미니콘서트

한국 CCM 사역자인 ‘나무엔’ LA 방문 미니 콘서트가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월 11일(목) 오후 7시 (하나크리스천 센터)
- *12일(금) 오후 7시 30분 (또감사선교교회)
- *13일(토) 오후 6시 (COF 부모모임, 다이아몬드바)
- *14일(주일) 오전 11시 (인랜드온누리교회 특송)
- *14일(주일) 오후 2시 (LA비전교회)
- *문의: 323-934-0058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The Church Called And Sent To the World)” 주제로 오는 3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소재 주 예수교회 디아스포라사회선교원(DSMC)에서 개최된다. 디아스포라사회선교원(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에서 주최하고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관하며, 센트럴신학대학원(CBTS)이 협력하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강사로는 한국일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가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통전적 관점”과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강의하게 되며, 신광섭교수(센트럴신학대학교, 선교

학 교수)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 ”선교적 교회 대화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 배현찬 목사(주 예수교회 담임)가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목회 실제, ”노승환 장로(주 예수교회 장로)가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박태은 장로(주 예수교회 장로)가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강연을 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노숙자 숙박 및 식사사역, 장애인 독거노인 주택보수 사역, 산골 빈민 집수리 봉사, 인종통합 축제, 한국 음식문화 축제 등 주 예수교회의 사회 선교사역을 통해 교회의 실제적 모형을 배우게 된다. ▲등록문의: 전화) 804-560-7500 홈페이지) www.ljkc.org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상우주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인생 성패의 기준

예레미야 17: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성경은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왔기에 육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영에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성공한 인생을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 악인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1절에 “우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다의 죄는 최고로 단단한 금강석 끝 철필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다의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세라는 옷을 입지 않은 형상으로 나무를 깎아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잘 가꾸어놓은 생활 터전을 한 톨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녀 대대로 잘 살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생활 터전을 마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 기뻐하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저 수고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당장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살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무것도 아닌 금, 은 목석에 불과한 것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들에게 바치고 절을 하고 복을 빌면서 살아가기도 합니

다. 이는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 섬기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들의 모든 토지와 집과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헛수고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며 우리는 지옥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다고 합니다. 노고는 일하는 고통입니다. 죄인은 몸살 앓아가며 일하게 하고,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은 죄인들이 하고,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우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2.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

5-6절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곧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떨기나무는 나무 그 자체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자를 떨기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는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버림 받은 땅의 대표입니다. 그곳에서 언젠가 잘 될 날이 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

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뢰’한다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알아 모 든 기대를 걸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믿고 맡기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잎이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물가에서 공급해 주는 수분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삶이 형통하며 은혜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게 됩니다.

3.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10절에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 참아가며 죄를 이기는 자는 그 행위대로 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반면에 불의와 죄악을 일삼은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방법으로 자고새의 예를 듭니다. 다른 암채 없는 새가 몰래 자고새의 등지에 자기의 알을 낳아놓고 가면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인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품습니다. 새끼들이 부화해서 알에서 나왔는데, 그 생김새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도 자고새는 알을 품었기에 어느 정도 클 때가

지 돌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품었던 새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금고에 넣어서 애지중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임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도가 넘쳐서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물질이 옮겨질 때에 소유자에게 화병만 남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자고새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관하느라고 헛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요긴하고 선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힘 있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영적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지혜와 은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다문화선교(3)

다문화 사회와 그리스도인

어느 사회든 민족이든, 자신들만의 문화가 있다. 문화란 우리의 생활양식으로써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행동과 사고방식을 포함한다. 국가, 민족, 가정 등 대부분의 집단은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고유의 문화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사회화와 문화적 과정을 거쳐서 전승되며 고유문화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다문화라는 의미는 이러한 문화적 상황속에서 자신들의 고유문화만을 추구하던 단일문화에서 또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여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라고 한다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문화 공동체가 공존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유지되거나, 발전 혹은 공존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는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일컫는 말”로 정의되어진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로 인해서 소통이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교회의 구성요소가 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교회성장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문화주의의 장점과 더불어 단점에 관하여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즉 다문화주의는 교회에 있어 확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문화와 종교에 동화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는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이주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종교적 압박으로부터 피난온자들, 재난이나 환경파괴로 인한 난민들, 결혼 혹은 유학 이후 미국에 정착하는 이들 등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무슬림들(Muslims)이다. 무슬림들은 미국에서 최근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이민문화 그룹이다. 미국의 퓨 리서치가 행한 “지구촌 무슬림의 미래”라는 연구에 의하면 (2010), 오늘날 지구촌 인구 유입의 68.5%가 무슬림들이었다고 한다. 이들 무슬림들은 2010년 한 해동안 프랑스에는 약 66,000명, 스페인은 70,000명, 영국은 64,000명이 이주하였으며 2030년에는 유럽의 10여 개 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설 것이라 예측했다.

이렇듯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 민간연



송재호 목사
하늘샘교회

구기관 ‘종교와 공공생활을 위한 퓨포럼(PFRPL)’이 발표한 “세계 무슬림 인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슬림 인구는 향후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무슬림 인구는 2010년 현재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8%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620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 마디로 20년 뒤 미국 사회의 무슬림 인구는 현재 유대인이나 영국 성공교회도 수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슬림 인구의 미국 이민과 신규 영주권 취득자 중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이민자의 상당수는 남아시아와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이들의 문제점은 교회 내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 이후 이슬람교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의 대외 목적은 이슬람교를 선전하여 많은 이슬람교도들을 이슬람교에 가입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교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대외적인 선교가 점차 대내적으로 기울면서 이슬람교의 정신과 경건을 회복하는 부흥운동으로 바뀌어 복고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복고주의 무슬림은 오직 이슬람교의 교의와 생활방식만이 이 사회의 사악한 문제들을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 무슬림 인구는 비공식적으로 약 3백 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아직은 두터운 백인계 인구의 벽을 넘기에는 요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미국 전체의 인구 13%를 차지하는 흑인을 중심으로 이슬람 운동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국내 흑인 중 75만 명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슬람권에서 이민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다문화주의는 현존하는 교회들에게 깊은 우려를 가져다 주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적 평등”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켜졌던 사회적 통념을 깨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학교와 공공서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성경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서서히 사회속에서 희석되어지기 시작했다. 성도들마저 다문화주의 사회에 살아가게 되면서 기독교적 역사와 전통 및 가치관을 버리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와같은 현상이 약 천여 년 동안 ‘선교적 교회론’을 이루며 번영하였던 유럽에서도 진행되었던 사실이라는 것이다. 유럽교회들은 지난 20세기에 들어와 교인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면서 서서히 박물관, 공동 아파트, 술집, 나아가 이슬람과 힌두교의 집회 장소로까지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의 유럽이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데에는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 한다.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라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선교적 시작에서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의 사회에서도 지난 시간 유럽교회들이 경험했던 “이슬람 공포증”(Islamophobia)과 같은 현상과 결과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에서 교회는 다양한 언어와 인종적 그룹들로 구성된 교회로 전도와 교회개혁, 목회사역의 범위에 폭넓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문화 목회와 선교를 고민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기초가 된 사회와 문화적 통합을 이뤄야 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복음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신학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는 세상속에서 동화되어 “자유”라고 하는 타협속에 그 순수의 맛과 색깔을 잃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 모두는 지금 시대적 사명인 다문화 목회 사역과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보다 신중히 고민하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문화적 사명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것이로다”(고전 9:16)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매일 오늘처럼 기뻐라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가치, 누구를 대하든지 인격자로 대하며 그 상대방을 나의 스승으로 대하는 것 뿐이다. 그는 그 면을 말해 주었다. 내가 그 분에게 준 영향이라면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오늘날 교회에서 외치는 설교나 성경공부가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뜻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옛 추억이나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을 찾고 있다. 예수님은 정을 한없이 나눠 주셨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고쳐주

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를, 상처 투성이인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나 내일의 소망과 꿈을 안고 힘차게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

교계에 부정적인 말이 많은 중에 특히 나에게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말이 있다. “홍수 때 천하가 물로 넘쳐 나지만 정작 내가 마실 물은 없다”는 말이다. 모든 성직자나 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오늘 기쁘게 살리라, 이유인즉 내가 뿌린 복음의 씨가 오늘도 여러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 기쁘고 감사할 뿐이다.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몫이다. 오늘도 기쁜 이유는 따뜻한 정이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기쁘게 사는 우리가 되자.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능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PRESIDENTS DAY SALE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JUST ARRIVED

Get Better Deal On
2016 Hyundai
 Find Out Why!!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62,45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인터뷰〉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작된 작곡...이젠 ‘소명’ 향해”

■ 세계 팝음악계에 우뚝선 한인, 신혁 줌바스뮤직 대표

“어느 날 갑자기 성공.”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성공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 좌절과 아픔이 없는 경우가 없다. 이제 서른 살밖에 되지 않은 작곡가 ‘신혁’이란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저스틴 비버나 엑소, 샤이니, 소녀시대를 모르고는 쉽지 않다. 그들의 노래를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신혁이다.

버클리음대 4학년이던 2009년, 신혁이 세상에 공개한 첫 번째 곡 ‘원 레스 론리 걸(One Less Lonely Girl)’은 저스틴 비버의 첫 정규앨범 마이 월드(My World)에 수록되며 단순해 빌보드차트 1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앨범 자체는 빌보드 1위에 올랐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20대 한국 출신 유학생의 노래가 미국 빌보드를 기습 점령해 버린 사건이다.

이후 케이팝 시장에서도 신혁의 이름을 자주 만나게 된다. 엑소의 “너의 세상으로”는 중국 음반 차트인 시나에서도 1위를 기록했으며 엑소의 대표곡 ‘으르렁’은 빌보드 월드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케이팝으로 세계 음악계에 신혁의 이름을 다시 각인시킨 순간이었다. 2011년 그가 세운 줌바스뮤직그룹은 할리우드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작곡, 음반 프로듀싱, 신인 발굴 등으로 이 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신생 기업’에 속한다.

이쯤 되면 신혁에 관해 자세히는 몰라도 ‘성공한 한인’이란 건 확실하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성공으로 시작해 여전히 성공 중인 그의 인생이다. 그러나 그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내면 신혁의 표정엔 불편함이 스친다. “아... 예...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한 일이 아닌데요...” 그에게는 성공이란 단어보다 예정과 소명이란 단어가 더 익숙하다. 경험

도, 인맥도, 돈도 없었던 신혁을 미국 주류무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아주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가 다니던 중학교에 ‘컴퓨터 음악’이란 학생 클럽이 생겼다. 평소 음악을 좋아했던 신혁은 주저 없이 이 클럽에 가입했다가 음악의 세계에 눈을 뜬다. 미래에 자신의 노래를 빌보드차트에 올리겠다는 야무진 꿈도 생겼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까지 신혁이 작곡한 곡은 무려 50여 개에 달했다. 그러나 그의 첫 직업은 가수였다. 잘 생긴 외모에 탄탄한 가창력까지 있었으니 ‘뭐가 좀 되려나’ 싶었지만, 그의 첫 앨범 ‘Soar’는 그리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19세에 겪은 첫 번째 실패였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가수가 제 길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아마 그때 성공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그러나 실패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음대로 유학을 택했다. 혼자 남겨진 방에는 영어 문제, 고독함, 불확실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음악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버클리에 와 보니 자신은 평균 수준 정도였다.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음악으로 해소해 갔죠. 특히 기도하는 어머니와 가족이 그 시기를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길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음악을 만들고, 주말에는 뉴욕으로 버스를 타고 올라가 데모 곡들을 여기저기 뿌리며 발표를 팔았다. 찬밥 신세일지라도 돈도 없고 뺨도 없으니 별수 없었다. 대학 4년을 마칠 때가 되자 ‘이제 끝났다. 한국 갈 집이나 싸자’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신혁이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셨다. 신혁이 ‘정말 자신 있어’ 하던 바로 그 곡이 아니라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던 곡이 당시 신인인 저스틴 비버에게 가면서 일약 히트를 친 것이다.

“중학생 때 품었던 막연한 꿈이 한순간에 이뤄진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돈도 벌었죠. 그때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던 걸요. 제가 한 일이 아니니 겸손히 감사할 뿐이에요.”

가수로서의 시행착오, 4년간의 유학과 무명생활 후 하나님이 주신 성공. 그렇게 승승장구로만 끝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다. 그가 세운 프로덕션 회사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신혁 대표.

곡 제작 과정에서 한 업체와 마찰을 빚으면서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다. 그 많은 돈도 야금야금 날아갔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케이팝’이란 길을 열어 주셨다. 한국 대중음악계가 신혁에게 러브콜을 먼저 보내왔다. “비가 오면 돌아가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케이팝으로 방향을 튼 신혁에게 다시 기회가 생겼다. 오직 미국에만 쏠려있던 그의 시선이 미국과 한국 시장을 오가며 세계로 넓혀졌다. 할리우드와 서울에 줌바스뮤직그룹을 설립했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 반경을 확장하고 있다.

“아마 계속 잘 됐다면 한 가지 밖에 몰랐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줌바스뮤직그룹은 작곡, 프로듀싱을 비롯해서 신인을 발굴하는 일

도 하고 있다. 요즘은 신인 한국 가수들을 미국 무대로 내보내는 일에 관심이 많다.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시작된 ‘음악인 신혁’의 삶은 결국 소명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 사람과 일할 때 ‘내가 대니가 내 말 들어,’ ‘내 스타일 대로 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키우는 일은 두려움을 주어서 되지 않고 사랑으로만 됩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만 할 뿐이에요. 우리 회사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좀 있지만, 우리의 믿는 모습을 보고 교회와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도, 음악과 함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큰 일을 해내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람을 낚는 여부,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김준형 기자

“부친 여중생 살인 사건...목사·박사가 나온 사람? 착각”



김동호 목사.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교회)가 최근 부친 목사 부부의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해 4일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 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방치해 둔 아버지가 목사이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라는 사실

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며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들 이야기 하면서 놀라워하고 경악해한다. 다분히 그럴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고 운을 뗐다.

이후 “그러나 그런 기사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목사가 뭘데? 박사가 뭘데?’ 하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다”며 “그 놀라움과 경악 속에는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박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목사든, 박사든, 놀라워하며 경악해하는 사람이든, 그게 나든... 사람은 누구나 다 순식간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순식간에, 그게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그런 범죄 별거 아니나라거나 그 목사 부부를 감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목사 부부는 법이 정한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박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호 목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순간의 두려움과 당황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은폐했다가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도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목사 부부와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 목사는 “내 속에도 그 목사가 있고, 내 안에도 그 박사가 있다”며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난 내가 무섭다”고 했다.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라는 말씀을 거론하면서 “사람이, 목사가, 박사가, 자신이 의인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망상을 틈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죽는 날까지 삶에 자신 갖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조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합원
- 기독교학위(PhD),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9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익산시에 조성 중인 식품클러스터단지.

“할랄 마케팅 전국 확산”

무슬림 대거 유입 우려 불구하고... 정부는 무슬림 유입없다 입장

할랄단지가 조성돼도 무슬림이 대거 유입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이슬람 측은 무슬림 30만이 거주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전문단지 조성이 추진됐던 익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랄 마케팅이 가속화돼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MBC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이슬람 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해 온 한국형 할랄 6차 산업 육성 사업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이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에서 공모한 '2016년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최대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헤드라인제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도 할랄시장에 제주 유망 수출 상품을 알리기 위한 '2016년 해외 마케팅 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밖에 진주배가 신선농산물로는 세계 최초로 UAE 할랄 인증을 받아 두바이 첫 수출 선적식을 지난달 27일 문산읍 소재 진주원협 선별장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할랄식품수출지원센터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전문가인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 담임, 4HIM 대표)는 최근 할랄에 대한 글을 통해 “이슬람의 율법 중 할랄은 허용된 것을 말한다”며 “할랄 규정이 까다롭다는 것은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한 것이며, 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할랄 도축방법(Dhabihah)은 비위생적이다. 왜냐하면 짐승의 목을 칼로 베어, 피를 빼기 위해서 산 채로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짐승이 발바닥을 치면서 그 피가 사방으로 튀기 때문이다. 그 짐승은 죽는 순간까지 2-5분 동안 극도의 고통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치명적 독소가 생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로 안전한 식품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할랄은 이슬람 율법을 무기로 이용하는 원리주의자들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원리주의자들의 최종 목적은 이슬람 율법인 사리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온 세상을 그 지배하에 두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웅 기자

“딸 시신 방치 신학교수 엮기사건”

목회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인성... 먼저 사람이 돼야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여중생 딸의 시신을 1년 동안 방안에 방치한 채 함께 생활해 왔던 신학교수 이모 목사(47)의 엮기적인 사건으로 한국사회가 놀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핵심은 목회자의 '인성'에 있고 한국교회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많이 했는데, 사람이 되는 공부를 못한 것”이라 지적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인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목회자'가 되기 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목회자들을 양성해내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면 그런 동물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이모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딸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간 것과 관련, “이 목사의 100% 거짓말”이라며 “사건 수사가 진행되니 당당히 죄 값을 받아야 할 텐데 살인죄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어 그런 핑계를 흘린 것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죽자 당황스럽고, 신학자도 목사나 알려지면 감당할 길이 없을 것 같아 하루 이를 미루다 보니 은폐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병대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 “아이가 죽은 줄 알고도 가출신고를 했다거나, 학

교 교사가 아이 신상에 대해 물어볼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 등을 살펴볼 때 같은 맥락의 거짓”이라며 “이런 끔찍한 변명으로 한국교회가 매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규 신학교수가, 정식 교단의 목사가 그런 사이비 이단 같은 소리를 거짓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제2의 타격을 준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병대 목사는 “신학생과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할 때 영성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성 없이 영성에만 치우친 교육이 이뤄지면 (이번 경우처럼) '야누스의 얼굴'과 같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신학교의 '인성검사'와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한편 대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신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살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도 “윤리·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내태함과 세속주의 등의 한 현상일 수 있다”며 기독교계의 영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 역시 “신학자라고 했지만 신앙과 인격이 따라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신학교도 교회도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따라 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성매매·軍동성에 합법화 결사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 각 6천여 명 것 전달

軍동성에·성매매 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4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시 한 번 군 동성에·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탄원서 및 서명지(각 6천여 명)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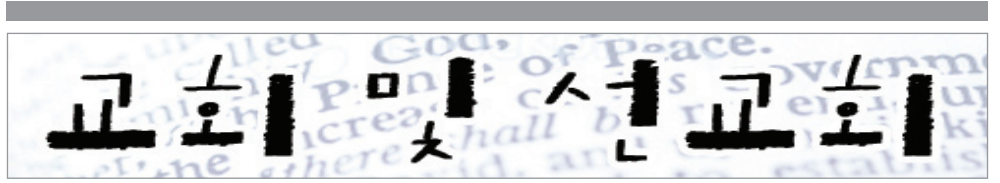
연합 측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과 군(軍) 동성에 처벌조항(군형법 92조 6)의 위헌심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뜻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지키기를 원하며 성매매와 군 동성애가 합법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연합 측은 성매매 합법화 반대(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합헌 판결 관련)에 대

해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연합 측은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피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됐다”면서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조래하게 될 것”이라 했다.

박용국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도 이단(세례)을 제외하고, 이단(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방 토 오전 9:30-12:30
환어청년부 오후 1:30 아미나기도모임 수요일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p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환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영철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택**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조인수 담임목사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한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 (213) 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믿,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복복지 상담 및 대생 (정부 배넌트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연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 389-0937, (213) 389-0938 F. (323) 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용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F.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지리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오바마, 재임 중 첫 모스크 방문”

메릴랜드 ‘볼티모어 이슬람 소사이어티’ 방문... 만연한 ‘이슬람포비아’ 비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처음으로 모스크(이슬람 사원)을 찾았다.

3일 메릴랜드 ‘볼티모어 이슬람 소사이어티’에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만연한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슬람포비아’는 ‘이슬람공포증’ 혹은 ‘이슬람 혐오증’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초반 “TV와 영화가 무슬림들을 굉장히 왜곡되게 묘사한다”고 지적하고, “9.11사태와 파리 테러, 샌버나디노 무슬림 총기난사 등으로 말미암아 테러와 신앙을 뒤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의 미국 내 이슬람에 대한 경계가 너무 많은 테러로 말미암아 발생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흑인이 이제 TV에 나오는 것처럼, 테러와 관계 없는 무슬림들이 TV에 등장해

야 한다는 식의 설득도 이뤄졌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이슬람포비아로 말미암아 무슬림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극소수 무슬림의 폭력 때문에 무고한 무슬림들이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이다”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모스크 방문을 피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이슬람포비아가 미국 내 만연해지자, 오히려 약자가 된 온건 무슬림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번 방문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 © 백악관

“알라는 하나님 주장 호킨스 교수 사임”

알라=하나님 주장하며 히잡썼던...휘튼대 여교수 결국 사임해



결국 사임한 휘튼대 호킨스 교수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신이라며 무슬림에 대한 지지의 의미로 히잡을 쓰겠다고 선언했던 휘튼대학교의 흑인 여교수가 결국 학교를 사임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 이와 같은 발언과 자신이 히잡을 쓴 모습을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올려 큰 이슈가 됐던 휘튼 칼리지 정치학과 라리샤 호킨스 교수는 이 일로 대학 측과 마찰 끝에 비공개 합의를 맺고,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6일 알려졌다.

한편 미국 사카고에 위치한 휘튼칼리지는 자국 내 가장 독실한 기독교 대학 중 하나로, 호킨스 교수의 언행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이에 타 교수들과 학생들, 동창회가 호킨스 교수를 지지하고 대학에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까지 선언,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미국인 60%... 무슬림 중 반미주의자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 약 49% 가량이 “무슬림들 가운데 미국에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11%는 “무슬림들 대부분, 혹은 거의 전부가 반미주의자”라고 대답한 이들도 있었다. 반면 “무슬림들 가운데 반미 정서를 가진 사람은 전혀 혹은 거의 없다”고 대답한 인원은 42%였다.



IS의 소년병들.

“대형교회 공격 자생 테러리스트 붙잡혀”

‘외로운 늑대’ 예방·추적 어려워 곤혹...IS는 아예 지침서까지 배포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Lone Wolf) 한 마리가 미국에서 또 잡혔다. 디트로이트 당국은 이슬람국가(IS)를 지지하고 교회를 공격하려 했던 칼릴 아부라얀(21)을 체포했다고 6일 공개했다.

연방수사국(FBI)과 디트로이트 주 당국에 따르면, 라얀은 지난해 5월부터 총기 관련 혐의와 대마초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다. 최근에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IS가 인질을 처형하는 동영상 선전물을 올리고 IS를 지지해 FBI가 요주의 인물로 감시 중이었다.

특히 FBI는 라얀이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 긴급 체포했다. 이 교회는 약 6천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규모로, 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 했다. 그는 ‘순교 작전’을 벌이고 누군가를 참수하고 싶다는 서신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얀은 동조자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실제 행동을 옮기기 전, 그의 부친이 총기와 총탄,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등을 발견해 사고 전 예방이 가능했다.

한편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는 심심찮게 ‘외로운 늑대’ 소식이 계속 해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총기난사를 계획하던 무슬림 남성이 FBI에 붙잡혔으며, 2월 들어서는 10대 청소년이 테러를 계획하고 이를 말리려는 부모를 청부살해하려 했던 사실이 발각돼 경악케 했다. 이 둘은 모두 극단주의 이슬람에 심취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 초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는 이슬람에 심취한 무슬림 부부가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에서 총기난사를 벌여 최소 14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 때도 이들 부부는 스스로 극단주의 이슬람에 심취해 과격화 되고, 테러 단체와 연계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IS는 아예 ‘외로운 늑대’들을 위한 영문 지침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소책자에는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리스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지혜(?)를 전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외로운 늑대’들은 테러 감행 시점 혹은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아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추적조차 힘들고 그 범행대상들이 주로 접근성이 쉽고 용이한 민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적 테러보다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민해방군. ©유튜브

“中國도 IS테러 비상”

중국군, IS 베이징 테러 예정 첩보로... 최고 경계태세로 돌입

이슬람국가(IS)가 중국 베이징에서 테러를 준비 중이란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인민해방군이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교토 통신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외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IS에 의한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이 자국내 IS 테러 문제로 경계태세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삼엄한 경계태세를 취하지만, 테러 정보로 말미암아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한 것은 이례적이라 평가다.

“獨 세계 최초 동성애자 난민 숙소 마련”

獨 뉘른베르크에 마련... 성소수자 학대 증가 우려에 따른 조치

독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뉘른베르크에 ‘동성애자 난민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3일 보도했다. 당국은 “난민 숙소 내에서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독일 남부 뉘른베르크의 신규 시설은 8명을 수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시설은 게이·레즈비언 단체인 플리델리히(Fliederlich)가 운영 중이며, 대여 가능하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인 마이클 글라스는 “이곳으로 옮긴 사람은 아직 없지만, 이미 시설은 준비돼 있고 하루 이틀 지나면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에티오피아 출신 4명의 난민들이 사용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글라스는 “20명의 난민들이 현재 컴퓨터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된 후,

동성애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즉시 필요하게 됐다. 일부 무슬림들은 난민 숙소 내의 동성애자·트랜스젠더들에게 위화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에서 핍박받던 이들이, 독일의 난민 숙소에 와서도 여전히 표적이 되고 있다. 편견은 국경을 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뉘른베르크의 이 시설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독일 전역에 설치될 예정인 4개 시설 중 하나로, 베를린은 오는 3월 120개의 침상을 갖춘 더 큰 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뉘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 역시 같은 시설 마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에 위치한 동성애협회의 스테판 자벨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차별과 범죄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이들을 위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러시아 테러 기도 IS 테러범들 사전 적발”

미국과 독일 등에서 테러를 벌이려던 이슬람국가(IS) 대원들이 사전에 잡혔다는 소식이 있는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러시아에서 테러 모의를 하던 IS 대원들이 잡혔다는 소식이다.

8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최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등에서 테러를 일으키려던 IS 대원 7명을 러시아 서부 우랄산맥에 위치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체포했다고 한다.

터키에서 온 IS 대원이 리더로 이끌었던 이 조직은 자체 제작한 폭발물을 이

용해 대규모 테러 공격을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용의자들의 집에는 폭탄제조 실험실과 수류탄, 총기류, 뇌관 등을 비롯해 극단주의 문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지난 1월 말 러시아에서 테러를 벌이려 했던 3개 그룹을 적발해 예방했다. 또 북캅카스 공화국에서는 IS 대원 9명을 적발, 테러 기도를 사전에 막았으며, 이 가운데 6명을 체포했다. 최근에는 터키에서 사업을 가장해 테러범 10여 명이 러시아로 들어오려던 것을 적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S 전투에 화학무기 사용 의혹”

IS 전투에서 자체 생산 화학무기 사용 추정...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높아

이슬람국가(IS)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독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 온라인판은 4일(현지시간)자 신문을 통해 “IS가 겨자가스 등 화학무기를 제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알레마이네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아흐메트 우쭈쿠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그는 인터뷰를 통해 “IS가 화학무기를 자체 생산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실지로 OPCW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시리아 북부 알레포 부근에서 8월 겨자가스 공격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했던 바 있다. 이로 말미암아 IS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아흐메트 우쭈쿠 사무국장은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입수한 경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IS가 화학무기를 자체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중국 공산당 간부, 은퇴 후에도 종교활동 불허”

중국 공산당이 은퇴한 간부들에게도 종교를 가지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부서는 최근 이와 같은 새로운 당규를 발표했다.

중국 헌법은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신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산당 정권 아래에서 간부들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공산당 중앙위 조직부서는 이제부터는 은퇴한 간부들 역시 이와 같은 당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공산당 간부는 “이는 은퇴한 후에도 종교를 갖거나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컬트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라며, 또한 “어찌든 참여하게 되는 일부 소수민족 전통 행사 역시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P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글) 토 9:30AM-10:00PM
대학원(E-college) 주일 2: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지훈련(지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집아이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름날) 7:00am
화요일모기도회 7:00pm 토요일전집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양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벤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lfb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영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새벽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사바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30
토요일 금요일, 예프타스콜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생년부 오후 2:00

앨버틴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흥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wca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재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배회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령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중보기도

케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케냐의 기독교 유형과 삶의 영역...그리고 미래 전망

◆4가지의 교회 유형 존재

1. 국외거주자들의 교회들

나이로비(Nairobi)나 다른 큰 도시들에서 찾을 수 있다.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진보적 색깔을 띠, 주요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장 핍박이 적다.

2. 전통적인 교회들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이 겪는 박해와 그 정도는 사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슬람이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박해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3. 비전통적인 개신교 공동체들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이 교회들은 나라 주변부들, 즉 남쪽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의 국경 주변에 사는 부족들에게 손을 뻗으려는 많은 시도들을 해 오고 있다.

이 부족들은 대부분 목축 생활을 하고, 현대의 기술 및 생활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비전통적 개신교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기독교 유형들과 비교해 심한 박해를 받는다.

4. 개종자들(특히 무슬림 출신)

주로 북동쪽과 해안(몸바사 섬을 포함한)을 따라 형성된 무슬림 통치 지역들에 있다.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대개 다른 세 교회 유형의 구성원들과는 다른 박해에 직면한다.

◆삶의 영역

1. 개인의 삶

오픈도어의 정보를 통해 보면, 삶의 개인적 영역에서는 주로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이 박해 증가를 체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이 대부분인 케냐의 북동쪽 해안에서는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이 기독교 서적과 함께 발견되면 폭력적 보복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

2. 가족의 삶

가족 영역의 박해는 이슬람 극단주의 외에도, 다른 박해 동력들이 있는 무슬림 통치 지역들에서 극심하다.

오픈도어 조사원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북동쪽에 매장 장소를 얻지 못하고, 죽은 기독교인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무슬림이 대부분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출신 개종자와 그렇지 않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한다.

3. 공동체의 삶

무슬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기독교인 공동체의 삶은 다른 지역에 서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이러한 공동체적 핍박의 이유는 주로 가족 구성원들이나 대가족,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의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알려졌다.

4. 국가적 삶

국가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마주한 도전들은 가족, 공동체, 개인의 삶에만 제한되지 않고 국가적 영역으로 이어진다. 이런 국가적 영역에서의 박해를 뒷받침하는 동력들은 공무원들, 무슬림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과 종교 지도자들, 광적인 그들의 추종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의 결합이다. 국가 내의 언론 기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케냐에서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언론 기관은 무슬림들의 소유이고, 미묘하게 기독교인들을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내는 다큐멘터리들과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그들은 무슬림의 기자회견과 언론 발표에 많은 방송 시간을 내 준다"고 한다. 이런 기독교 탄압은 교회 지도자들의 일상생활을 따라다니고 녹화하여, 부정적인 모습으로 편집하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5. 교회의 삶

케냐에서 교회의 삶은 국가 내 박해 동력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영향을 행사하는 지역의 경우가 특별히 그러하다.

그 결과, 교회를 짓는 것 혹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현장 조사원은 "나라의 북동쪽에서는 마을 어른들이 이슬람의 문지기다. 이 어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에 대한 모



케냐의 천진난만한 어린이들.

든 박해를 주도하고, 교회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한다.

◆미래의 전망

오픈도어 현장 조사는 교회에 대해 심해지는 박해의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수의 케냐 교회는 자국 내 무슬림 공동체의 성장, 이들의 경제적 힘의 성장, 정치적 과격화(적어도 케냐 무슬림 공동체의 몇몇 구역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소외시키고 제거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신뢰할 만한 교회 지도자들은 박해를 마주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구조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케냐 정부의 관심을 얻으려는 계획과 실질적인 관계 형성은 상

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정부의 수용력 부족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정부의 자발적 관심 부족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는 가끔 기독교인을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혐의를 벗게 해 주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안의 주택 가옥 테러에서 무장단체 '알샤바브'에게 확실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 정치인들을 탓했다.

오픈도어 조사원에 따르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정부의 몇몇 고위직 관리들이 무슬림이고, 이슬람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키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동향은 향후 몇 년간 계속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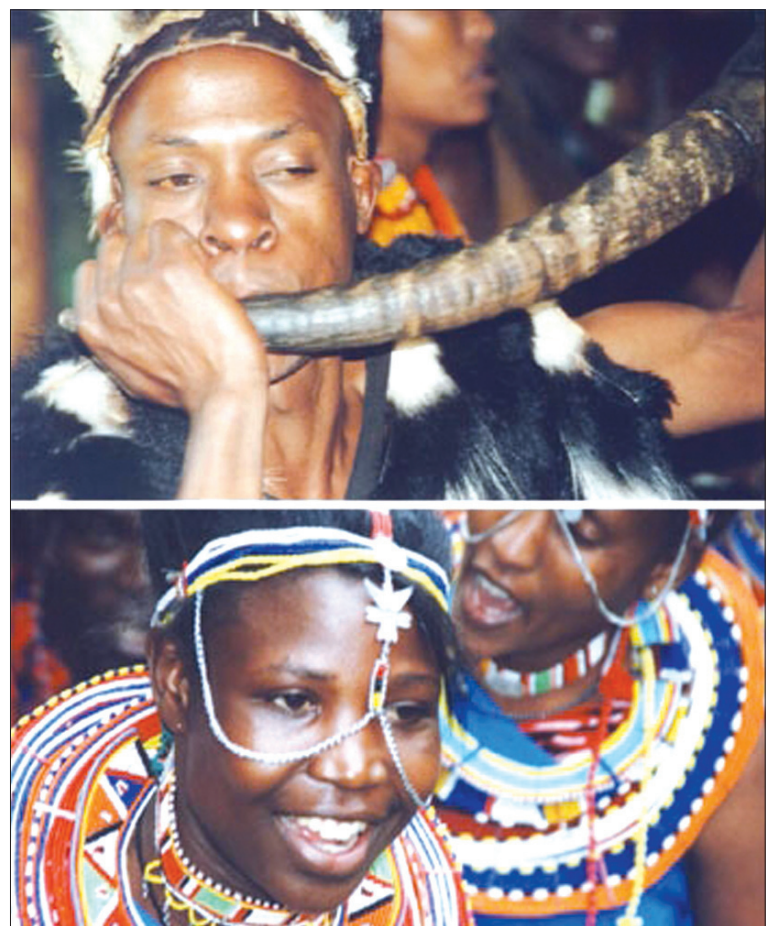
[자료출처: 오픈도어 선교회]



수류탄 공격을 받은 한 교회의 문.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얼굴을 크게 다친 목사(좌측)와 가리사대학 테러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우측).



케냐의 전통 악기(위)와 전통 의상(아래)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삶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수피즘 연구(2)

자아는 없어지고 알라만 남는다는 수피즘의 신비주의

〈지난호에서 계속〉

1.2. 범신론적인 합일신학

페르시아의 한 금욕주의자 알 비스타미(al-Bistami, -875)는 자신의 마음을 비움(Entwerden)으로써 신과의 일치를 추구하였다. 그는 소위 “범신론적 신비주의자(pantheistischer Mystiker)”로서 “나는 진리다; 나는 신적 경배를 통해 숭배된다”고 하였다.

“알라 앞에서 나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는 그의 논리는 수피즘의 범신론적 합일의 신비론으로, 알라는 초월자여서 자아는 알라와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으므로 자아가 알라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기 부재(non-existence) 현상은 인간 수피의 모든 의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과의 신비적 일치를 주장하였던, 동시대 신비주의자 알 할라지(al-Halladj, -922) 역시 백성들에게서 성인으로 숭배를 받던 한 “범신론적 일원론자(pantheistischer Monismus)”다. 오랜 수련 끝에 그는 “하나님”에게 “나는 당신입니다(Ich bin du)”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일반 종교들의 신비주의는 신과의 합일 내지 신의 사랑과의 합일을 추구하고, 신적 대상에게 전폭적으로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내적인 평화를 경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슬람 신비주의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하여, 인간과 접촉 가능성이 없는 초월자 알라에 대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슬람 신비주의의 목적은 수피의 영혼과 알라의 영혼(divine soul)을 철저히 동일시하고 알라와 절대적으로 하나(absolute oneness)가 되는 것이다. 결국 “I am not, god is”라는 ‘divine soul’을 실현하는 것이다.

「Islamic Surfism」이라는 책을 쓴 와히드 바크쉬 랍바니(Wahid Bakhsh Rabhani)는 ‘존재의 유일성(eness of being)’을 주장한다. 그의 존재의 유일성이란 온 우주가 신 안에 있으며,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

하지 않고 신의 본질이 우주에 표현되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가 신적 존재(god's being)라는 말이다.

그는 이러한 그의 사상을 ‘pure islamic pantheism and pure islamic monotheism’이라고 칭한다. 신은 어디나 계시고 오직 하나이며,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피들의 이러한 신비주의 사상은 꾸란과 정통 이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시아 고등종교들의 범야일체 사상 및 불교의 열반 상태와 흡사하다. 이러한 수피즘의 범신론적 합일 신학은 아시아 고등종교적 범신론과의 혼합주의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2. 신비체험

필자는 수 년 전 이집트에서 시아파 무슬림들이 후세인 모스크 홀에 가득 모인 가운데 관을 만지며 꾸란을 암송하고 선창과 복창을 반복하며 흥분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았다. 또 홀 밖에서는 여러 수피 모임들이 각각 반복적으로 몸을 좌우로 또는 앞뒤로 흔들며 선창과 복창으로 짧은 구절을 수없이 반복하고, 템포가 빨라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흥분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았다. 필자는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죽음의 상태’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진 일이 있다.

사실 이렇게 이끌리는 상태에 관해 알주나이드(Junayd)는 “알라가 너로 하여금 네 자신을 죽게 하고 너로 하여금 알라 안에서 살아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통의 수피 신학자 중에 알라를 추구한 알할라즈(Hallaj)는 “무슬림은 그 자신 안에서 알라를 통하여 그 신적 존재와 어느 정도 결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할라즈는 카피르(불신자)로 몰려 처형되었다.

할라즈가 본래적 이슬람 세계관에서 멀리 벗어나 인간 신격화의 위험 수준에 이르게 된 후, 외면적인 행동규범을 위한 이슬람 법(샤리아)과 내면적 갈증을 채우려는 수피즘의 조화를 이룬 양면성을 충족시킨, 이슬람교의 대학자 알가잘리는 전통적인 샤리



이동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아에다 수피즘을 더하였다.

알가잘리는 완전한 인간의 본은 무함마드라고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그는 완전한 인간의 마음은 알라의 보좌와 동일시되고, 완전한 인간은 알라의 복사판이라고도 주장하였다. 가잘리의 이러한 ‘완전한 인간’에 관한 가르침은 무함마드 숭배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알가잘리 사후 13세기에 시작된 수피학의 존재론적 합일을 추구한 대표적 스페인 수피 이븐 아라비는 피조물의 본질이 무(nothing)가 될 때 창조주와 합일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혼을 정화하면 근원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그는 “네가 너 자신을 알 때 ... 너와 알라가 하나이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2005년 강제춘의 ‘터키 수피즘의 영적 세계 및 수행 방법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독보적 연구물로 보인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메블라나 종단의 수행 방법은 fana(자기 소멸), baqa(신과의 합일), mahabba(신과 사랑의 합일)로 이어지는 것이다. 수피들은 세마춤을 추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알라’를 부르면서 자기를 비워간다. 자기가 소멸(fana)된 그 자리가 알라로 채워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합일의 순간(baqa)에 수피는 잠시 알라와 사랑의 합일(mahabba)을 느낀다는 것이다.

정통 이슬람이 샤리아에 복종함으로써 알라와 합일의 신비를 체험하고자 하는 바와는 달리, 수피즘은 파리카(길, 신과의 합일을 이루는 수행 전체)에 의해 알라에게 도달하고자 한다. 바로 메블라나 종단의 세마춤이 ‘신과의 합일’을 위한 수행기법(테크닉)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전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됨에 의해, 알라와의 합일

상태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세마춤의 수피수행 기법은 ① 파리카(Tariqah): 신비주의 공동체의 기법과 의례대로 수행하고 ② 디크르(dhikr): 무아지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염주를 돌리며 집중하여 알라를 염송한다 ③ 수흐바(suhbah): 종단 회원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비추고 깨닫는다 ④ 세마(sama): 알라와 합일하고 알라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악기 연주, 시 낭송, 노래, 춤 등으로 몸을 움직이며 황홀경을 체험하는 기법이다. 신과의 합일을 위해 환각 상태를 유발하려고 마리화나 같은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강제춘은 쵸냐(이고니온)에 위치한 메블라나종단 센터에서 세마잔들과의 인터뷰로 메블라나 수피즘의 세마 수행 방법에 관해 알게 된 바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필자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마춤의 수행은 신비주의 음악으로 시작한다. 시작하면 바로 피리(나이)연주가 세마의 흐름을 이끌어 간다. 피리 연주가 끝나면 이어서 무함마드와 성자들이 존경하고 평안을 염원하면서 메블라나가 쓴 시를 독창(나트)으로 연주한다. 그 시는 알라와의 합일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내용이다. 나트가 끝나면 북 연주(쿠뎀)로 이어지는데, 북소리는 알라의 명령(Sura 36:82)을 상징한다. 이제 세마잔(세마춤을 추는 사람)들이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세마춤의 복장과 춤은 모두 죽음 이후의 일들이다). 세마춤의 장면과 의미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세마잔들이 자아의 무덤을 상징하는 검은 망토를 입고 입장한다. 이는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현세의 삶을 포기한 것이며, 자아 죽음을 통하여 알라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② 이들은 비석을 상징하는 원통형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 ③ 입장하면서 바로 긴 시간에 걸쳐 깊이 허리를 굽혀 서로 인사하는데, 이러한 인사를 나누는 이유는 상대방의 깊은 깨달음과 합일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먼저는 셰이크(지도자)가

메블라나 잘랄루딘 루미의 표식이 있는 중앙에 위치한 붉은 양탄자 쪽에 가서 루미에게 인사하여 존경을 표하고, 모든 세마잔들과 무트립들(mutrib·음악연주가들)은 각각에게 겸손한 자세로 이와 같은 존경의 인사를 나눈다.

④ 세마잔들의 회전무가 시작되기 전에, 세마잔은 오른발로 왼쪽 엄지 발가락을 가리고 두 팔로 어깨를 감싼다. 알라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회전은 물질적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

⑤ 검은 망토를 벗는다. 이것은 수피의 자아가 죽은 후에 흠으로 시신을 덮는 것이라고 한다.

⑥ 망토 안에는 흰 겹옷과 조끼를 입고 있다. 이는 수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세마잔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징한다.

⑦ 흰옷을 입은 세마잔들은 두 손을 가슴에 올린 자세로 어깨를 감싸안고 1자로 선다. 아랍어 숫자로 하나, 즉 1자의 의미는 알라는 오직 한 분임과 알라와 하나됨을 상징한다.

⑧ 본격적으로 회전무를 시작한다: 세마잔들은 회전하면서 ‘알라 알라 알라 알라’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la ilaha illa Allah(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를 암송하기도 하며, 템포는 점차 조금씩 빨라진다. 회전은 4단계로 나누어 멈추었다가 시작한다. 인사는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회전이 멈출 때마다 계속한다.

⑨ 마침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여, 자아는 알라의 사랑 안에서 소멸된다. 자아 소멸은 최고의 경지이다.

⑩ 마무리 단계: 본래의 곳으로 돌아간다. 모두 높은 소리로 “후(hu!)”라고 한 후 서로 인사하고 마친다.

위와 같이 터키 수피즘의 메블라나 세마춤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알라와의 합일에 도달하려는 방법이다.

수피들은 알라에 집중하기 위해 “알라”라는 고백을 열렬히 끊임없이 반복하여 부르고, 돌고 돌다 자아를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면 그 자리에 알라가 채워진다고 자아가 알라에게 흡수된다는 이론이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최초의 7

존 C. 레녹스 | 새물결플러스 | 210쪽

창세기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 준다. 이 책은 창세기 1장의 7 일간의 창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내용은 쉽고, '젊은 지구론 VS 고대근동 신화 해석'의 대결 구도보다 온건하다. 젊은 지구론자들도 꼭 한번 읽어 봐야 할 책이다. 진화론은 싫고 오래된 지구는 좋다면 이 책을 추천! 고대 근동 신화와 창세기 1장의 비교 연구가 어렵다면, 이 책을 펴 보라!



5년 후 더 행복한 신혼부부 재테크

박유나 외 | 두란노 | 236쪽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 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슬한 갈등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내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저자의 다양한 TIP과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다가 보면, 결혼 이후 맞이하게 될 자녀 출산 및 양육,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승역

석용욱 | 흥성사 | 160쪽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이 열차에 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 슬한 질문이 웅성대는 가운데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다. 가고 싶지도 않고, 오고 싶지도 않고, 멈춰 싶지도 않은 자리, 막막한 환승역에 멈춰 선 그대에게,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한 책. 왜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잠시 타고 있던 열차에서 내려 보라.



가장 어려운 결단 말기

데비 애커먼 | 규장 | 240쪽

가장 큰 평안을 얻는 가장 쉬운 길, 말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결단이 어려운 사람. 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온 마음으로 희생하거나 섬기는 일이 힘든 사람. 내 생각과 유익을 위해 살려는 유혹을 떨치고 싶은 사람. 말기는 삶을 살 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 "왜 걱정하나요? 전부 다 맡기면 되는데..."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누가복음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책이다. 누가복음의 예수 묘사는 구유, 천사, 목자가 등장하는 탄생기사와 잃은 양, 동전, 탕자에 관한 비유 등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사실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자도를 공부하는 데 누가복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누가복음의 예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누가복음이 어떻게 예수

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울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본서는 1. 서론, 2. 성령의 활발한 역사; 베들레헴과 갈릴리의 예수, 3. 예수의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4. 누가복음의 신학적 주제, 5. 부가복음 설교와 가르침, 6. 참고자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를 여행자로 제시한다. 우리는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시며, 결정적 사건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점차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마침내 엠마오로 가시는 짧은 여정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누가복음의 예수
존 프록토
성서유니온선교회 | 80쪽

삶에 동행한다는 암시와 약속을 보여 준다. 누가복음을 읽은 후에는 예수와 우리의 여정이 계속된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

경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다.
성령의 활발한 역사를 통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자주 언급됨을 나타내준다. 성령은 예수의 사역에 시동을 걸어 가난한 세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보여 준다.
예수의 여정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자도를 압축해서 가르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헌신적 삶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보여 줌을 말해 주고 있다.
누가복음의 신학적 주제에서는 누가복음이 이야기의 포괄성을 담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예수께서 교제하고 받아들이시는 대상은 선

택적이거나보다는 포괄적이다.
누가복음 설교와 가르침에서는 누가복음은 비유로 가득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비유들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렌즈에 비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 준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이야기는 확실히 그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우리는 삶이라는 내러티브 속에서 비유의 진리를 발견하고 모자이크와 같은 일상에서 어렵듯이 그 나라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해 갈 때 풍성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영혼의 꽃씨

영혼의 꽃씨를
열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들!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umran.co.kr • 서울 홍유구 이화성길 6 • TEL : 747-1004(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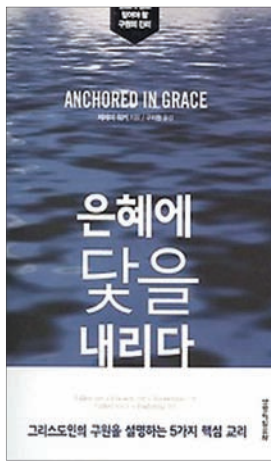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5가지 핵심교리

◆모두가 알고 믿어야 할 복음의 진수 칼빈주의 5대 강령, 'TULIP' 등으로 불리는 이른바 '은혜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교리로 꼽힌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든 막연한 진리에 의존할 뿐 은혜의 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 물론 지식과 믿음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 없는 믿음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탄하다. 그리스도인이 라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참진리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다듬어지고 정리되어온 '은혜의 교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어떤 평안을 누리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은혜에 닳을 내리다
제레미 워커
생명의말씀사 | 128쪽

◆심오한 진리를 쉽고 간결하게 많은 성도들이 교리 습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교리에 대한 선입견이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헤

아려, 본서는 용어 정리에서부터 문체, 분량, 단락 구분 등 다양한 면에서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또 교회사를 중심으로 풀어내거나 각주로 딱딱한 느낌을 주는 대신, 교리를 뒷받침하는 많은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교리가 의미하는 바를 저자의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며,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는 세심함을 통해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친근하게 교리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바는 '심오한 진리를 친근하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집필했다는 것이다.

본서의 출간으로 이제 성도들을 위한 은혜 교리 도서 검색을 멈추겠다는 콘라드 음베웨 목사의 말처럼, 청장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은혜 교리의 교본'으로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구원의 진리를 알길 바란다.

이영인 기자

“공의회를 통해 배우는 교회사”

이단과 신조를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



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저스틴 S. 홀컴
부흥과개혁사 | 270쪽



신조를 알면 교회사가...
저스틴 S. 홀컴
부흥과개혁사 | 280쪽

초대교회는 '다른 복음들'과 싸워야 했다. 이를 위해 모임을 가졌고, 그 결론을 문서의 형태로 남겼으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갔다.

<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와 <신조를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는 이를 잘 보여 주는 서적들이라 볼 수 있다. 두 책 모두 토론했던 문제를 제시했고, 참고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단을 알면...>은 바울서신에도 등장하는 1세기 '유대주의자'들부터 영지주의, 마르키온, 아리우스, 펠라기우스를 거쳐,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한 16세기 소키누스까지 열두 가지의 '이단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읽다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이단들도 결국 이들의 '메아리'일 뿐이다.

저자는 결론을 통해 "정통(orthodoxy) 신앙과 이단(heresy)의 경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 논쟁을 통해 분명해졌지만, 이설(heterodoxy)과 이단의 경계는 모호하다"며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한 이단에 빠져들었다고 선언하기에 앞서, 지혜와 분별력, 겸손이 많이 필요함을 뜻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교회학이 처한 현재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교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일 없이 교리 차원에서의 불일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을 다시 배워야 함을 보여 준다. 우리는 초대교회 신조들에 근거하여 이단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을 이단으로 판단하

기에 앞서, 초대교회가 전수한 교리적 정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세례에 대한 믿음이나, 특정 은사가 현재도 지속된다고 보는 믿음, 혹은 특정한 속죄 견해에 대한 믿음이 이단의 자리는 아니"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과 독자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기독교 교회가 가진 핵심적 믿음을 하나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천명했다.

이 '핵심적 믿음'을 규정하고 확인한 것이 바로 '공의회(Council)'였고, 여기서 '신조(Creed)'와 '신앙고백(Confession)', '교리문답(Catechism)'이 발표됐다. 저자는 책을 통해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신조와 신앙고백, 교리문답, 공의회를 개인 혹은 소모임 차원에서 읽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개관한다.

<신조를 알면...>에서는 '사도신경'부터 '니케아 공의회'에서 발표된 '니케아 신조(325)', 에베소(431, 449, 475)·칼케돈(451) 공의회, 아타나시우스 신조,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6)을 거쳐 현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와 로잔 언약(1974), '성경의 무오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1978)'까지 다루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통해 신앙에 제기된 난제와 씨름해 왔고, 그들이 어떻게 씨름했는지 배워서 얻는 귀중한 시각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신뢰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세계 선교를 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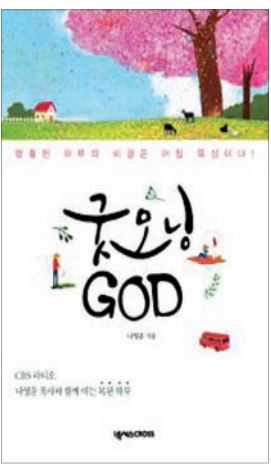
이대용 기자

“형통한 하루의 비결은 아침묵상”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루를 열도록 돕는 묵상집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는 추천사를 통해 "나영은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주는 분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따뜻한 치유를 전해 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위로와 도전을 주는구나. 가슴에 담기는 책이구나'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께서 나영은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일어선다면 뜨거운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견게 될 것입니다."라며 일독할 것을 적극 추천했다.

<굿모닝 GOD>은 CBS 라디오 나영은 목사와 함께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루를 열도록 돕는 묵상집이다. 기다림의 지혜, 축복을 주고받는 말의 습관, 리더의 조건, 도전하는 사람의 특징, 감사의 기적, 위기



굿모닝 GOD
나영은
넥서스CROSS | 236쪽

를 기회로 바꾸는 법,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등 인생을 살 때 꼭 필요한 삶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다.

특히 딱딱한 성경 이야기가 아닌, 편안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메시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하루에 한 꼭지씩 읽으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 신앙생활의 유익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 또한 에세이 책처럼 예쁜 일러스트로 디자인해 여성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을 찾고 싶은 이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은 이에게 <굿모닝 GOD>은 꼭 필요한 책이다.

또 <굿모닝 GOD>이 꼭 필요한 하나 나라의 리더는 누구일까? 첫째, 딱딱한 성경 이야기가 아닌 쉽고 편안한 메시지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 둘째, 2016년에는 한 달에 책 한 권을 꼭 읽기로 다짐한 사람. 셋째, 한 권쯤은 항상 가지고 다니며 책을 읽고 싶은 사람. 넷째, 새해에 적당한 가격으로 좋은 책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 다섯째, 부담스럽지 않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싶은 사람 등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대리점 모집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용품, 세차, 어항, 냄세제,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세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세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세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적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금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갈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금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잘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방청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칼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디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전도용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을 구비하고 계시거나 행사자료로 활용하시거나 더욱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제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تون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에도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특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작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bout 30 youth students attended the joint gathering at Temple Israel of Hollywood on Friday.

Jewish and Korean American Teens Learn About One Another's Faith

BY RACHAEL LEE

Temple Israel of Hollywood had some unusual guests during its Friday night Shabbat: a group of some 20 Korean American teenagers, a youth pastor, a Korean parent, and a few church youth group leaders.

The visit was the second in an exchange that Temple Israel participated in with Los Angeles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LACPC), the first of which involved Temple Israel's youth visiting LACPC's Sunday youth worship service in December.

For some, it may be easy to draw the connection as to why the two groups have decided to come together. After all, Jews and Christians share at least one thing in common: the Old Testament of the Bible. Pastor Joseph Kim, the youth pastor of LACPC, shared that one of the primary reasons he decided to say yes to such an endeavor with Temple Israel was out of his hopes that the experience would deepen the youths'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and of the Jewish customs the youth read about in the Bible.

"I don't know much about Jewish culture except for what I read in the Old Testament of the Bible, and I'v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Jewish people or see how Jewish worship is done in their synagogues, modern day," Kim explained in an interview in December. "And for our kids, hav-

ing this kind of exposure really opens their eyes and would inform them as they grow into adults."

"Right now, our kids have been going through Old Testament books for the past few months in their personal devotionals, and I thought it would be a cool experience for them to actually interact with the descendants of the people they're reading about," Kim added.

Rabbi Jocee Hudson, the religious school director at Temple Israel, initiated the exchange for a slightly different reason. Hudson had had a growing desire to change the youth students' curriculum and provide a space for them to engage with groups of other races and faiths, she explained, and ultimately collaborate on justice efforts together.

In fact, Temple Israel has pursued interfaith justice and community service efforts with other local religious groups on numerous occasions in the past. It collaborated with Islah Muslim Social Services to give food to some 200 homeless individuals, and hosted an interfaith service on Martin Luther King's Day.

"Interfaith connections are really important to change the city and the world for the better," Hudson explained. "Forging these kinds of partnerships, and having these kinds of dialogues together, could ultimately lead to bigger things."

For many of the teens, it seems that they took the experience rath-

er simply. The taste of a different religious service, and interacting with peers of a different religious community, was simply interesting and "cool," as many of the teens said.

It was the first time many of the Jewish youth sang along to contemporary Christian songs or listened to a Christian pastor's sermon. And likewise, most of the Christian youth had sat in on a Jewish Shabbat for the first time, listening to the Psalms they might have read in church being sung in Hebrew and to a sermon (called a *d'var Torah*) about the Jewish faith.

"It was really cool for me to branch out and learn about other religions," said Lauren Freedman, a 13-year-old who attends Temple Israel and had grown up in a Jewish school. "I would like to go back some time," she added, saying that she hopes more exchanges like this would happen again.

"I've never been in a synagogue before or a Jewish worship," said Daniel Kang, who was invited by a friend who attends LACPC. "It was a cool experience."

Eric Choi, a 12-year-old from LACPC, said that the exchange challenged him to become more devout in his own faith.

"The experience opened up my mind and showed me that others are working just as hard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God," Choi said. "And that reminded me that I shouldn't give up either."

Church of Southland Celebrates 15 Years, Encouraging the Church to Participate in Missions

BY RACHAEL LEE

To celebrate its 15th anniversary, Church of Southland actually focused on something outside of itself: global missions.

Church of Southland, a church located in Anaheim consisting of some 1,000 congregants, had a weekend full of activities to celebrate its 15th anniversary, including a Friday night full of performances by members of many departments within the church. An 'SNL' -- 'Southland Night Live' -- performance, and performances by the children's minist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ers, were some of them.

But a bulk of the weekend's festivities revolved around missions, as a full day on Saturday was dedicated to a missions conference, and missionaries were also invited and joined the services on Sunday. The church usually dedicates the month of February to focus on missions, according to Church of Southland staff, and decided that taking time to do so during the anniversary weekend would be fitting.

About 15 missionaries from

various parts of Southeast Asia supported by Church of Southland and/or by Acts Ministries International -- which Southland is affiliated with -- were invited and shared their testimonies throughout the day on Saturday.

Many shared stories of the growths of their church plants, and the people that were reached with the gospel.

"I am amazed at what God is doing here at Southland and I anticipate what He will continue to do through this church to reach the world," said one missionary.

"Normal Christianity requires us to be witnesses for Christ," Pastor Keith Park, the lead pastor and founder of Church of Southland, said on Saturday, addressing the congregation.

"When we don't fulfill our mission as witnesses, we miss our purpose," Park continued. "As a church, we are a gathering of witnesses."

Church of Southland began in February of 2001 with some 75 to 80 people, and today, the church consists of some 650 adult members and about 380 children and youth.



Church of Southland celebrated its 15th anniversary from February 5-7.

Pop Music Composer Sees Career as 'Result of God's Thorough Plans'

BY JUNHYEONG LEE
TRANSLATED BY RACHAEL LEE

It seems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success that simply and suddenly lands on your lap. As a third party, one can one day see that a person is successful, but for the person who has achieved something, that success required a heavy investment of hard work and preparation, as well as long seasons of failure and pain. Many may not know Hyuk Shin, who is now just 30 years old, but Shin has composed music for popular artists in the U.S. and South Korea, including Justin Bieber, EXO, Shinee, and Girls' Generation.

In 2009, when Shin was a fourth-year student at Berklee College of Music, Shin took the world by a storm with 'One Less Lonely Girl,' the first song that Shin released to the world which became a part of Justin Bieber's debut album, 'My World.' The song immediately rose to number 16 on the Billboard charts, while the album rose up to number 1. Shin's name is also found often in the K-Pop realm, as he also wrote the music for 'Into Your World (Angel)' for EXO, which reached number 1 in China's music charts, and 'Growl,' by EXO, which also reached number 1 for the Billboard's world music charts. In 2011, Joombas Music Group, which was founded by Shin himself, started offices in Hollywood and Seoul, and became one of the better known start-up music companies for composing,

producing, and recruiting.

Having said all that,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Shin can be considered as 'successful.' But when saying such things in front of him, a noticeable discomfort passes his expression. Rather than 'success,' he finds more comfort in the words, 'plan,' and 'calling.' Shin, who had no experience, no connections, nor any money, attributes his ability to enter the mainstream music marketplace to God.

"I can only see it all as the result of God's thorough preparations and plans," he said.

When Shin was in the eighth grade, a club called 'Computer Music' was formed at Shin's middle school. Shin, who always loved music, joined the club without hesitation and his eyes were opened to the world of music. He started dreaming that his songs would reach the billboard charts. By the time he reached his junior year in high school, he had written 50 original songs. But his first job was that of a singer. His good looks and his strong voice gave rise to hopes for success. But his first album, 'Soar,' didn't receive much interest from the crowd. At 19 years old, this was the first moment of failure that Shin had experienced.

"It was difficult at the time, but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realize that being a singer wasn't the right path for me," he reflected. "If I had succeeded at that time, the current me wouldn't be here today."

Shin decided he couldn't simply wallow in the disappointment of failure. He went on to move to Boston to study and write music at Berklee College of Music. Awaiting him were language barriers, loneliness, and an uncertain future. While he was often acknowledged as a skillful musician in Korea, he found that he was simply average in comparison to his peers at Berklee.

During afternoons he would study, while at nights he would make music, and during the weekends he would take the bus to New York to pass out samples of his music to various people. By the time he finished four years of college, he was close to throwing in the towel and moving back to Korea, he said.

But as long as Shin wasn't giving up, it seemed God's faithful plan was continuing to unfold. The song that Shin wasn't necessarily proud of, but 'thought was just alright,' turned out to be the song that landed on Justin Bieber's debut album, causing Shin to become a star overnight.

It would've been nice if the success simply carried on from there, but God's thoughts were, again, different. The production company that he started got involved in a conflict with another company during a contracting process, and Shin's company was reduced to no more than just a name. All of the money they were able to earn had also disappeared, little by little.

During this crisis, God opened an unexpected door: K-Pop. Main-



Hyuk Shin is the CEO of Joombas Music Group. (Photo courtesy of Joombas)

stream Korean music producers reached out to Shin first, expressing interest. Following his father's advice to "go around when the rain falls," Shin turned his direction to K-Pop, where a new opportunity awaited him. Shin's focus, which was once only on the American market, was expanded to that in South Korea as well. Joombas Music Group's offices expanded to another one in Seoul, and is currently expanding their activities to stages all over the world.

"If things kept working out [in America], I might've only known just one thing," Shin said. "But God has been working, and I've just been giving my best."

Joombas Music Group now is involved in composing, producing, and recruiting new singers into the field. Many are interested in recruiting new Korean singers and sending them into the American

market. Such work involves cultivating and investing in people. Through this, Shin, whose life as a musician began with God's plan, is now working towards his calling.

"I don't tell people to listen to me, or just follow my style, just because I'm the director or the CEO. You can't build or cultivate people with intimidation; you have to do it with love. I'm just doing the work of giving them their necessities to help their own dreams and world unfold. There are people in our company who aren't Christians, but they start becoming more interested in the faith and in going to church after they see us and our faith. Even this, along with music, is a calling that God has given me. God doesn't want me to do something big -- he wants me to be a fisher of men, a witness for the gospel, with the talents that he has given me."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lca.org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포함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로렌 커닝햄 YWAM 총재 | 데이빗 로스 안디옥커넥션 대표 | 폴 애실맨 CRU 부총재 | 론 스미스 YWAM SBS 성경학교 | 타드 존슨 고든켄넬 교수 | 존 왈러스 아주사대학교 총장 | 서삼정 아틀란제일장로교회 |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 장영춘 쾨츠장로교회 | 나광삼 큰무리교회



고석희 KWMC 사무총장 | 이승중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 김혜택 뉴욕총신교회 | 배현찬 주예수교회 | 호성기 필라안디옥교회 | 정인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 이동휘 바울선교회 대표 | 정운찬 전 국무총리 |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 강승삼 KWMA 전회장 | 박기호 플러신학교 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 오정호 세로남교회 | 장상길 송도주사랑교회 | 마이클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 이동열 GKYM 사무총장 | 송충석 KWMF대표회장 | 안성원 KWMF사무총장 | 한도수 KWMF공동회장 | 김중국 KWMF공동회장 | 박명하 KWMF공동회장 | 강대홍 태국선교사



강성일 브라질선교사 | 이극범 프랑스선교사 | 최광규 도미니카선교사 | 김영관 베트남선교사 | 김경일 KWMF사무총장 | 김정환 미주선교사 | 정석천 태국선교사 | 최용순 가나선교사 | 이금주 말레이시아선교사 | 김승호 일본선교사 | 장영호 러시아선교사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오정호 세로남교회 |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 진재혁 지구촌교회 | 김양재 우리들교회 | 김동엽 목민교회 | 김문훈 포도원교회



스코트스카스트 플러신학교대학원장 | 고석희 KWMC 사무총장 | 한정국 KWMA 사무총장 |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 | 김병운 필리핀 선교사 | 강운식 기쁨병원 원장

등록문의 www.kwmf.info / kwmf2016@gmail.com
KWMF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 무료 별도침대 □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일할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GKYM FEST |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어린이선교대회 |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 고현진 전도사 | 고유진 전도사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세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 Ave, Azusa, CA 91702

